대상 (고학년부)

금 연

이 창 현
독산 초등학교 5-5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차분하면서 화목하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고 살면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는 어머니를 이웃분들께서는 칭찬하시곤 합니다. 저희 두 형제에게도 웬만한 일은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르셔서 큰 소리를 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전혀 다른 표정의 무서운 얼굴로 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입니다.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이렇게 세분 어른 남자가 계시는데 그중 담배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뿐이십니다.

삼촌은 집에서는 어른이 계셔서 안 피우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피우시다가 지금은 안 피우십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도 젊은 시절 한때는 담배 때문에 할머니와 지금의 어머님, 아버님 못지 않게 전쟁을 치루곤 하셨답니다.

그러시던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신 것은 건강 때문에도,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도 아닌 바로 고모, 즉 할아버지의 딸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고모가 지금의 저만할 때 피아노를 무척 갖고 싶어 하셨는데 형편상 사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구하신 방법이 1년간 금주. 금연을 결심하시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으로 저금을 하셔서 피아노를 사주기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1년 후 술은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는데 담배는 막상 끊으시고 보니 머리도 맑아지고 냄새도 안나서 깨끗해서 좋다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담배를 안 피우게 되셨답니다. 할아버지의 고모에 대한 '사랑'이 담배를 끊게 하신거지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금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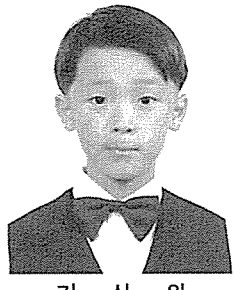
무서운 공갈협박, 벌금부과, 포상금, 애교작전 등 별별 작전을 다 펼치시지만 아버지는 굳세게 담배를 피우십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비우실 때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주무실 때 등등.

간혹 아버지께서도 TV나 신문 등에 나오는 흡연의 무서움을 보시거나 읽으신 후에는 '금연'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피아노 사달라고 조르는 예쁜 딸이 없어서인가 라고 농담반 진담반 섞인 푸념을 하시곤 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금연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버지가 불쌍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예선전을 보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베란다로 쫓겨 나실 때가 그럴 때입니다.

금연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금연을 위한 좋은 방법이 없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신담배 개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김 상 원
홍대부속 초등학교 3-4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고 다정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좋으신 분이랍니다. 제게는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이고 최고의 아버지이시죠.

하지만 하루에 담배를 세갑 이상이나 피우시기 때문에 집에도, 승용차에도 항상 담배 연기가 자욱하답니다.

빨래와 청소, 시장까지 봐다 주시면서도 담배 때문에 어머니께 꼼짝도 못하셨어요. 추운 겨울 잠옷차림으로 현관 밖으로 쫓겨나서 오들오들 떨며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시던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회사에서 앞자리에 앉은 젊은 직원이 김 차장님의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며 회사를 그만두신 일도 있었대요.

몇번이나 끊으려고 노력하셨지만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큰소리치셨고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1993년 7월 1일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큰고모께서 엉엉 우시며 아버지께, "제발 담배 좀 끊어라. 아버님이 담배만 안 피우셨어도 좀더 오래 사셨을 텐데!"하시며 사정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산소에서 돌아오시며 금연을 결심하셨고 정말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끊은 후 자꾸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났어요. 저녁이면 식사를 거르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살이 찌고 72kg에서 79kg이 되었어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과일이나 과자를 드시며 무척 노력하셨지만 7개월이 지난 어느날 몰래 피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와 저는 조금만 참으시라고 사정을 하였지만 서서히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도 포기를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런 데 몇달이 지난 어느날 후후 입김을 불며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셨어요. 계속 피울 때는 몰랐는데 끊었다가 다시 피우니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아셨대요. 몸도 무겁고 나른하다고 하시며 한마디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아주 끊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셨어요.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는 것은 운동으로 조절하셨어요. 처음에는 헬스를 하셨는데 돈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시며 아침에 동네를 뛰며 아침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아침운동을 하였는데 덕분에 줄넘기를 우리반에서 제일 잘하는 왕중왕이 되었어요.

담배값으로 나가던 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금통에 저금을 하셨어요. 얼마전 그 돈으로 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 시민공원도 가고 절두산까지 달려갔다 오기도 해요. 아침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구수한 되장찌게가 아버지와 저를 맞아 주지요. 담배를 끊은 후 우리집은 언제나 하하 호호 웃음꽃이 피어요. 두분이 싸우실 일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외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회사직원과 친구분들까지 금연을 하셔요. 결단력 있는 우리 아버지 노력 때문이지요. 체중도 예전의 멋장이 아버지 모습을 되찾으셨고 어머니께 큰소리도 치고 당당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를 탈 때마다 자랑스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껴요.